

기고

임영진 화순 능주119안전센터 소방위



축사화재 위험요인 미리점검하고 예방하자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는 요즘, 모든 화재사고에 주의해야 겠지만 더욱 주의를 요하는 곳이 바로 축사화재다.

대부분의 축사는 건축비가 저렴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고, 내부에는 볏짚과 사료 등의 가연물을 대량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들은 현장출동소 방대가 화재를 진화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고, 위치 또한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진 곳이 많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축사 화재는 유지관리에 소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편의를 누리다가 지칫 화재라도 발생하면 그에 뒤따르는 엄청난 재산 피해는 물론, 원상 복구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된다.

첫째, 축사화재의 80%이상은

차지하는 전기와 화기취급 부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기설비 점검과 개, 보수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낡고 오래된 전선은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한다.

둘째, 전기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주변의 가연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장에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한 뒤 작업한다.

셋째, 축사화재의 80%이상은

셋째, 축사의 구조적인 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연성 재질인 부직포나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리 섬유패널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넷째, 시설관계자의 자율 안전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축사에는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안전점검을 생활화한다.

우리는 늘 화재예방을 외치지만 구호에 불과할 뿐 화재는 발생한다.

이러한 행사가 공허한 외침이 아닌 실천으로 옮긴다면 올 가을은 물론 내년 겨울나기까지 한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社說

구제역 예방에 최선 다해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축산당국이 초비상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소·염소·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 55만 마리, 염소 12만 마리, 돼지 117만 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공급받아 자체 접종해야 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가축 단 한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일제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달 말부터는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에 나선다.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돼지 3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돼 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해진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접종해 구제역 청정 지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의 모든 축산농가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무료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레아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구제역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축산농가는 행정당국과 보조를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변한 일교차로 인한 개인 위생관리

아침과 저녁에는 일교차가 크며 새벽일 경우에는 취침 중에 온도가 떨어져 상기도 감염 등 호흡기 질환에 119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질환인 환자의 경우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의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합병증도 포함 되어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전염되는 방법은 비말로 전염이 될 수 있기에 초기에 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호흡기 질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염이 될 수가 있기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층은 더욱 걸리기 쉬우며, 폐렴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폐렴으로 인하여 염증 수치가

상승하여 고열이 발생하여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병원으로 내원을 하여 진료를 보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 신체는 추운 날씨의 겨울 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감기와 다른 종류로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미열부터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을 동반한 전신증상 또한 발생을 하게 된다.

가장 손쉬운 예방법은 질환이 걸리기 전에 자신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생관리가 습관화 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의 위생철저로 인하여 타

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님 또는 가족들이 손씻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개인 한명의 위생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또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병원을 내원하기 힘들 경우 반드시 119에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119에 신고 시 우리 구급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중순 / 영암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Honam Shinmun,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the representative and editor-in-chief.

Advertisement for 'Hwaungseong' (화웅성)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he headline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